中央藥大 同門會報

겨울

2005년 제17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겨울

2005년 제17호

CONTENTS

3. 시 론
직능인의로서의 품위와 긍지를 갖자

4. 프로필
병원약사위원회(흑중회)

9. 동문회소식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회장단회의(2차)
초도이사회
고문단회의
회장단회의(3차)
여동문회의

10. 지부별소식
동작지부/追憶을 返芻하며 兄妹같은 사랑으로...

12. 여동문기고
DUR제도와 약사의 역할

13. 동기별소식
22회/올 가을 유난히 아름답다

14. 동기회동정
8회/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18회/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28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22. 특별기고
동문의 자화상

23. 만평
동

24. 역국도움이야기
겨울철 감기약 복약지도

26. 별난동문이야기
세월이 흘러서도 값어치가 있는 취미를 갖자

28. 회원동정

30. 모교, 총동창회 소식

32.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내역(기수별, 지부별)

36. 편집후기

표지사진 : 박장규(9회) 동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중앙약국)

인쇄 : 2005년 1월 15일 / 발행 : 2005년 1월 20일 / 발행인 : 임상묵 / 편집인 : 황공용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화 : 565-1700 / 팩스 : 564-1701 / E-mail:capa21@hananet.net
기획, 인쇄 : 유천문화사 / 전화 : (02)2263-1901(대) / 팩스 : (02) 2263-1905 / E-mail:YC1905@chollian.net

직능인으로서의 품위와 긍지를 갖자

노 덕 재
(12회, 부회장)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세월이 流水라 했던가?

행운의 꿈을 안고 캠퍼스에 들어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는 6,000여명의 동문선후배가 탄생하여 대가족이 되었으니 대가족다운 비젼과 노력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문직능인으로서 국민건강권의 수호에 진력해야함은 물론 직능 앞에 산적한 난제들도 지혜를 모아 헤쳐 나가야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약사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사회와 각 동문회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하고 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선후배와 동료를 배려하고 약사로서의 공존을 생각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국민보건의 향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눈앞의 이익에 매달려 오직 자신만의 생존을 위한 이익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 앞서고 있다. 지난날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사랑하라"던 충고도 이제는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받아드리려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나라가 있어 그 안에 국민이 있듯이, 부모가 있기에 자식도 있으며 모교가 있으니 선후배도 있다. 결국 선배가 선배답게 후배가 후배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준다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를 포기한다면 메마르고 인정머리 없는 세상만 존재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탓하거나 답습하며 따라가지만 말고 우리에겐(약사들) 우리들이 지켜 오고 지켜나갈 정도와 전통이 있다. 이를 이어 받아 따뜻한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문회나 약사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때 business측면과 공익성을 함께 지닌 직능인으로서의 품위와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적 역할의 비중도 국민적 인정도 받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결속된 동문회와 약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의에 죽고 참에 살자는 모교의 교훈을 되새기며 글을 맺을까 한다.

세상을 탓하거나 답습하며 따라가지만 말고 우리에겐(약사들) 우리들이 지켜 오고 지켜나갈 정도와 전통이 있다 이를 이어 받아 따뜻한 세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 병원 약사 위원 회 -

흑중회 Profile

김 승 엽 회장(11회)
충남대병원(약제부장)

이 종 주 (6회)
군산의료원(전)

최 귀 령 (8회)
여의도성모병원(약제차장)

이 대 윤 (10회)
건대민중병원(전)

조 정 자 (10회)
성남병원(전)

박 찬 희 (11회)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약제과장)

염 윤 기 (12회)
순천향의과대학(교수)

이 성 우 (11회)
삼진제약(사장)

김 일 영 (12회)
마산삼성병원(전)

흑중회는 병원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동문회 지부로서
처방조제시의 개선점, 복약지도 등에 대하여 연구, 토론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약사직능의 재정립에 견인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 창 현 (13회)
현대약품(부사장)

이 영 희 (20회)
인천기독병원(약제과장)

강 혜 옥 (20회)
고신대복음병원(약제부장)

류 화 송 (20회)
국립공주병원(약제과장)

지 현 태 (20회)
한국세로노(사장)

이 광 섭 총무(24회)
서울적십자병원(약제부장)

윤 희 정 (31회)
울산동강병원(약제팀장)

송 소 연 (31회)
국립의료원(약제계장)

장 인 순 (32회)
단국대병원(약제과장)

제34회 모교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및 홈커밍데이"

일시 : 2004년 10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 중앙대학교 대 운동장

임상묵 회장

성대석 총동창회 부회장

최영욱 학장

홍흥만 회장의 개회선언

청팀 : 구로 · 금천, 강서, 양천, 성북, 송파, 종로, 마포, 중랑, 은평, 중구, 강동, 광명, 수원, 용인, 강원, 안산, 인천, 고양, 시흥, 충북, 대전,

백팀 : 성동 · 광진, 서초, 강남, 관악, 서대문, 동작, 노원, 영등포, 동대문, 도봉 · 강북, 용산, 안양, 성남, 부천, 평택, 천안,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체육대회를 앞두고 해마다 날씨 때문에 걱정이 앞섰지만 항상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올해는 이른 아침부터 청명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조금은 무더웠던 날씨였다.

일찌감치 운동장에 나와 체육대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진행을 책임지신 김경오(19회) 동문회 사무총장과 김승재(24회) 부사무총장의 준비하는모습이 부산하게 움직였다.

또 한쪽에는 해마다 체육대회를 도와주는 행정실 직원들과 약대 학생회 임원들이 천막과 테이블등을 설치하고 준비해온 상품들을 진열하는등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다.

올해도 역시 약대 최영욱학장(24회)과 황완균 학부장(26회)이 미리 나와서 행사준비를 독려하고 격려하며 도와주는 모습이 분주하다.

올해는 모처럼 모교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다.

박찬희(11회) 여동문회장, 김미담(19회) 총무는 일찍부터 서두른 동문들에게 떡이며 음료수와 차를 대접하느라 손길이 매우 분주하다..

김기홍(1회) 고문, 오세형(3회)고문, 최종묵(3회) 고문, 유영후(7회) 고문, 홍흥만(1회) 동기회장, 그리고 오랜만에 공식행사에 참석한 김육동(1회) 선

배님께서 일찍부터 참석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한덕용 명예교수, 김일혁 명예교수, 김종갑 명예교수께서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셨다.

내빈으로는 성대석 총동창회 부회장, 남수자 이화여대 약학대학 동문회장, 신충웅 관악구 약사회장(홍순영 덕성여대 약학대학 동문회장 부군)

등이 참석해 주셨고, 임철부(6회) 의약식품대학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개회식에 앞서 축구경기 예선을 먼저 치루었다. 예선전은 안산지부와 안양지부, 강서지부가 풀리그로 경기를 치루어 안산지부와 안양지부가 결승에 진출했다.

축구 예선경기가 끝난 뒤 김경오 동문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식을 시작했다. 임상묵 동문회장님은 "선 · 후배 동문간에 화합과 단결을 통해 친목을 도모 할뿐만 아니라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한마음 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요지의 개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1회 동기회 회장이신 홍흥만(1회)동문이 개회선언을 하시고 막내인 이상영(45회)동문이 선수선언을 함으로써 세대를 초월한 한마음 동문체육대회의 팡파레를 울렸다.

본격적인 체육행사에 앞서 오늘행사의 진행을 맡은 정태원소장을 소개하고 곧이어 몸풀기체조를 시작했으며 1부 행사로 안산과 안양지부의 축구 결승전을 치루었다. 박빙의 경기였지만 결과는 2:1로 안산이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내친김에 약대동문교수님의 [illegible] 동문에서 팀과 축구경기를 하였는데 가볍게 이길것이라는 예상을 뒤업고 교수팀의 활약이 돋보여 친선축구 경기의박진감을 더하였다. 특히 서황석(8회) 미주동문의 열정적인 활약과 신상직(17회) 동문의 뛰어난 활약 또한 보는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비록 우승컵은 없었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경기로 모두의 기억에 남으리라!

이어 벌어진 코믹피구시합과 발야구는 특히 여동문과 재학생 후배들의 참여가 빛났던 경기였다. 헛발질과 실수투성이인 백팀과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 정태원 소장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백팀에 유리한 판정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청팀의 승리로 끝났다.

2부 명랑운동회에서는 10인11각 경기를 했는데 걱정이 앞서는 게임이었다.

청 · 백팀선수와 재학생, 교수님이 같은 팀을 이루었기에 혹시라도 넘어지면 큰 부상을 당할 것이란 생각에 조마조마하게 연습경기를 지켜보았는데 구령에 맞추어 한발 한발 나아가는 모습에서 역시 우리 중앙인은 한마음이란 생각을 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벤치에서 구경만 하시던 임상묵회장님과 이경옥 동문, 조의환 동문과 김영희 동문, 최종묵 고문님과 박찬희 여동문회장, 최영욱 학장님과 문옥자 동문들이 모두 나오셔서 서로 짝을 이루어 커플게임을 신나게 즐겼다.

이어서 청백게임의 하이라이트인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되었다.

모두가 참가해 청 · 백팀으로 나누어 줄다리기를 했는데, 끌려오는 청팀들 모습은 불쌍하기까지 했고, 구령에 맞추어 단결된 모습의 백팀은 의기양양한 모습에 자신감이 넘쳐났다. 보기에는 양쪽의 힘이 비슷할 것 같은데 역시 단결이 문제였다. 줄다리기는 항상 단합을 잘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나보다.

다음 경기는 계주인데, 운동회의 꽃인 계주를 준비하는 선수들 모습이 마치 초등학교 어린아이와 같이 설레이는 모습이다. 선수를 제외한 동문들이 운동장을 원으로 둘러앉은 모습은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간 듯 사회자의 지시에 잘 따른다. 긴장의 순간에 뿜어져 나온 동문 선 · 후배들의 응원소리는 대운동장을 쩡쩡울리고 청,백팀의 불꽃튀는 경주는 승부를 떠나 손에 땀을쥐게 하였다. 모처럼 볼만했던 신나는 경기였다.

모든 경기를 마치고 이어서 모교의날 기념 홈커밍데이를 시작했다.

홈커밍데이 행사를 대운동장에서 가든파티 형식으로 체육대회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진행함으로써 시간도 단축되고 많은 동문들이 끝까지 함께 참여함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었다.

파티의 주메뉴는 즉석 멧돼지 바베큐에 흑석동의 옛 맛을 그리워하는 동문들을 위해 흑석동 시장에서 머릿고기, 순대, 육개장, 막걸리등등 학창시절에 즐기던 정감있는 음식을 준비하였다.

특히 임상묵 회장님과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님 두분이 모든 선 · 후배에게 막걸리를 표주박으로 돌리는 모습이 왕년에 학창시절의 정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

막걸리를 나누며 정태원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운권 추첨과 장기자랑을 통해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노래와 행가레를 하며 즐거워하는 동문들의 모습을 보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서 정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최다 참가상을 받은 안산지부는 매년 버스를 동원해 가족들과 더불어 참석하여 거의 모든상을 휩쓸다시피 하는데 동문들의 단합된 모습이 정말 부럽기만하다.

행운상 1등은 문옥자(8회) 동문이 뽑혀서 21인치 텔레비젼을 수상했는데 즉석에서 동문회관에 기증하는 동문애를 보여주었다. 덕분에 회관에 낡은 TV는 퇴출되었고 회관이 밝아졌다. 문선배님! 싸랑해요....

올해는 해마다 동문회 체육대회로 수고해주신 김영희 행정실장께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함으로 동문들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금년에는 약사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겹쳐 참석률이 약간 저조하여 약간 아쉽지만 화합과 단합을 통한 동문회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의 의미는 올해도 "의에죽고 참에사는 모교의 정신"을 수혈받고 참여한 동문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채워주었을 것이다.

부디 내년 모교의 날 행사에는 이글을 읽는 모든 동문이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 정리 : 김경오 사무총장 –

회장단회의(2차)

△일시 : 2004년 8월 23일 6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2004년도 초도이사회 준비의 건
2. 모교의 날 준비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초도이사회

△일시 : 2004년 9월 11일 6시
△장소 : 박소선할매곰탕
△안건 : 1. 경과보고
2. 2004년도 예산안심의 건
3. 모교의 날 "체육대회"의 건
4. 동문회 공동사입 현황보고의 건
5. 기타토의 사항

고문단회의

△일 시 : 2004년 10월 5일
△장 소 : 동문회관
△참석자 : 임상묵 회장 ,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김명섭, 임완호, 유영후
△안 건 : 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에 관한 건

회장단 회의(3차)

△일시 : 2004년 11월 8일 6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특별위원회 회칙개정의 건
2. 모교의 날 체육대회 행사보고의 건
3. 동문회 공동사입 현황보고의 건
4. 기타토의 사항

여동문회의

△일시 : 2004년 12월 9일 12시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경과보고
2. 여동문회 발전의 건
3. 기타토의 사항
△강의 : 문옥자(8회) 동문 겨울철 건강관리 노하우

엄 계 숙
(13회, 이사)

追憶을 返芻하며 兄妹같은 사랑으로…

젖은 枯葉이 흐느끼며 떨어진다.

晩秋의 아픔은 헐벗은 겨울나무 숲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풍지대였던 모교 교문을 나선 지 나 또한 36째로 접어든다. 줄곳 동작지부를 떠난 적이 없으니 어느 누구보다 감회와 사랑이 자별할 수밖에….

비가 오면 비에 젖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으며 우리 모든 동문들은 잘도 견디며 살아왔으며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계신다.

특히나 중대 약대 동작지부 선·후배 諸賢 께서는 특유의 성실함과 각고의 노력으로 탄탄한 저력 위에 참 열심히들 사신다. 누구도 나서서 튀어나게 자랑하거나 자기 PR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동작지부는 참 자주자주 만나는 편이다.만나면 요식적인 회의 분위기라기 보단 사랑방 가족모임 분위기라고 말하는 게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약국에서의 애로사항,가족대소사 등등 서로 털어놓고 상의하고 좋은 일에는 축하를,언짢은 일에는 모두 한마음되어 위로받고 위로 해준다. 비록 대외적으로 폼나게 활동한 실적 자랑은 별로 없다 할수는 있으되 내부 결속은 여타의 어느 지부도 부러워할 정도라 자부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80년 관악 분회로부터 동작분회로 분구되었을 때 초대 분회장을 하셨던 김의섭(9회) 선배님, 동작구 구의회의장을 하셨던 박용준(7회) 선배님,한약의 대가 박옥균(7회)선배님,고 두흔(2회), 박명자(5회) 부부박사 선배님, 현재 동작구분회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신 손승언(9회) 선배님 등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 없는 자랑스런 선배님들이 만드신 초석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모교를 지척에 두고있는 홈그라운드의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

추억 한토막!

96년 한조시 시험 때 그 당시 변상훈(14회) 분회장(지금은 타구에 계시지만)을 중심으로 보름회-동문회내의 학구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집에 모여 3시간씩 공부를 했었다.공부를 마치고 책을 밀어놓고 공부방을 노래방으로 만들어 노래를 맘껏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의 첫번째 사안은 젊은 동문들이 보다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보다 진일보된 구상이 잘 되어지도록 동작지부, 모든 원님들 단결과 결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때 김**선배님은 담배 때문에 우리 여동문들에게 어지간히 구박을 받으시면서도 그 담배를 못 끊고 우리집 벽난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구박피해 담배 피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연한데 그 선배님 동작구 떠나신 지 오래됐다. 이래저래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보름회 모임도 뜨악해졌다.그리움의 한자락을 남겨놓은 채….

의약분업은 우리 동작지부에도 많은 변화를 유발시켰다.그 때에 비해 회원이 많이 줄어 30여명….

그러나 우린 잠시 흩어졌던 보름회도 재조직하려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하는 중이다. 아직은 공개 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묵계와 구상이 있으므로….

조금전에도 이은주(34회)총무-남편 이준한 동문은 대전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이라 주말부부인-에게 은주야(동생부르듯) 이래 저래 이것 저것? 묻고 좀 해주겠니? 부탁하고 이글을 쓰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의 첫번째 사안은 젊은 동문들이 현재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보다 진일보된 구상이 잘되어지도록 동작지부, 모든 원님들 단결과 결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DUR제도는 약사가 처방조제 과정에서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 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사례(DUR),즉 (약물상호작용, 연령대별 부적절한 용량, 약물알레르기, 약물중복, 투여금기 등)을 자동감지하고 적절한 조치사항을 제시해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제도와 약사의 역할

보건의료 향상위한 화학적 역할분담, 약사 책임 무거워져

오 옥 희 (26회, (주)팜밴 대표이사)

는 아니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현실에서 처방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어요?" 라고 일구동성으로 약사들은 외면하려 하지만 높아가는 국민의 의약품 안전의식과 약화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약분업단계에서 DUR시행이 적절했지만 이제 진정 DUR을 제2의 의약분업이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물리적인 직능간 분업이라면 이번 DUR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화학적 역할 분담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사는 직무유기를 해왔다, 이제 정신 차리고 약의 전문가로 거듭나야한다" 라고 스스로 질타하시는 약사님도 계십니다.

"병의원으로부터 심심찮게 금기 처방전이나 부적절한 용량을 처방하는 경우가 나온다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약리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어야한다"라고 충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사들은 의료보다 약품정보가 뒤늦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약사들 역시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쏟아지는 신약정보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없으며 국내시장에서 판매 되고 있는 3만여 종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정보를 모두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약물사용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연결

선진국의 DUR에 활용되고 있는 DUR기준은 30여년 동안 세계최고의 의약전문정보 IT기업으로 성장해온 미국 First DataBank의 데이터베이스이며 국내에서는 (주)팜밴이 FDB와 파트너로 제휴하여 5년에 걸쳐 국내 유일의 한국형 DUR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약국용으로는 의료보험청구용(팜이오)에 DUR정보가 탑재되어 공급되고 있고 병원용으로는 각 병원의 OCS시스템에 연결 의사처방전 작성 시, 약사의 조제투약 직전에 처방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점검하여 오 투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편리하게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보건의료는 모든 고객중심으로 개발 발전되어야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시민이 주체여야 하며 그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약의 전문인인 약사가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IT병용으로 지식을 적절하게 적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졌고 이제 사용자인 우리 약사들의 생각을 바꾸는 명분(?)만 남겨졌습니다.

또한 약사가 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미비한 현실이 무척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사의 정체성은 약의 전문가로 양성되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올 가을 유난히 아름답다

최 광 훈
(22회, 동기회장)

올 가을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꼭 설악산, 내장산이 아니더라도 수락산 계곡 길의 단풍도 탄성을 자아내고 아무 길가에서나 마주치는 나무들의 잎 변색도 한 폭의 가을 수채화를 보는 양 감흥을 일으킵니다.

없어진 교문대신 으뜸을 상징하는 엄지 손가락 조형물이 위치한 바로 옆 루이스가든의 멋진 가을 풍경에 흠뻑 젖은 지난 10월 9일은 중앙대학교 입학 30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였습니다.

잘 뭉치는 우리 동기들 참석인원도, 약대에 지정 기탁한 발전기금도 모두가 타 대학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공식행사 뒤 우리끼리 약속해 두었던 장소로 차수를 변경했습니다. 이슬이와 산사춘이 어우러졌고 제주도, 충청도, 서울… 각자 살고 있는 동네 이야기와 친구들의 근황 등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졸업 25년의 간격은 금방 없어지고, 이제 막 오십대로 접어드는 점잖음도 없어지고 철부지 학창시절의 그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뒷풀이는 끈끈했고 속이 후련하게 마감되었지만 진한 아쉬움은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버스에서 잘 못 내려서 무려 4킬로나 밤길을 걸었다고 자랑하고,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하여, 이젠 30년 세월을 보냈으니 남은 30년은 더욱 더 가깝게 살아가자고 이끄는 친구도 있습니다. 새벽 2시 총알택시타고 5시에 집에 무사히 도착한 대전, 충청권 동기, 택시타고 38선 넘어 전곡까지 돌아간 친구,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서운함을 22기 카페에 올린 친구도 있습니다.

비몽사몽 집에 들어간 친구가 많아서인지 디카도 취카가 되어 자료로 제출할 사진이 빈약함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동기 인물 자랑하려면 지면을 더 할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졸업 10주년, 입학 20주년, 졸업 25주년, 입학 30주년 등 네 번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을 정리하면서 동문회와 학교발전을 위한 최고의 기가 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모든 동기가 근심 걱정 없고 처음 만나 꿈꾸었던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서로서로 마음 쓰는 74동기의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 의 환
(8회, 동기회장)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유난히도 오색단풍이 아름다운 2004년 11월 13일.

우리 동기생들의 모임을 축하라도 해주듯이 밝고 맑은 햇살은 하루종일 대지를 비추어 주고 더욱더 아름다운 산하를 뒤덮은 단풍물결에 자연의 신비를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1960년도 입학동기생 중에서 확인된 인원은 202명으로서(남학생 152명, 여학생50명) 주소불명 및 미확인 인원은 22명을 제외한 180명(국내 170명, 국외 10명)으로 주소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 회장단을 소개해 보면 초대 회장 김성숙(금성약국) 제2대 강창호(인성약국), 제3대 박방홍(전 명문제약 사장), 제4대 임상묵(세계로약국)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1984년 10월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갖었고, 1989년 5월 대전 유성호텔에서 졸업 25주년기념행사와 1995년 2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 그리고 2004년 11월1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전 회장들의 꾸준한 동기사랑과 그 열정으로 이어져온 결과라고 생각할 때 이번 40주년 행사에 보여준 열화와 같은 동기생들의 동참에 다시 한번 회장으로써 감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석명(LA Fremont 거주)과 김혜선(LA Sandiago 거주)캐나다 박성애(Vancouver 거주) 멀리에서 사는 동기생들이 우리행사를 위하여 고국을 방문해 주어서 행사가 더욱 더 빛이 났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행사를 위한 온라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행사안내와 회비십만원 통보를 내 보낸 후 행사일 전까지 107명의 동기생들이 전원 회비를 완납해 주시고 열의를 보여 주신 점 무엇보다도 회장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특별회비를 십만원에서 오백만원까지 흥쾌히 내준신 동기분들께 모든 회원을 대신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동기생들은 현재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의환 (약학박사 삼진제약 회장), 이백천 ((주)바이넥스 사장), 박번일 (삼성제약(주) 사장), 김돈기 (글로벌데이몸팜 사장 : 중앙대 식품의약 대학원 객원교수), 한석원 (보성약국, 전 대한약사회 회장), 임상묵 (세계로 약국, 현 약대총동문회장, 은평구의회의장), 주왕기 (강원약대교수 약학박사, 현 한국약품남용연구소장), 김항석 (서민약국 : 1989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화, 벼루, 도자기를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기증. 현재는 중국 역사를 간직한 '묵' 18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숙명여대 박물관에도 기증함),

문옥자 (경기약국 : 한약강좌의 수석강사, 저서 : 약전한학의 임상연구)윤주섭 (윤약국 : 전 은평구 약사회장, 현 서울특별시 약사회 총회의장), 허근희 (모발전문약국 WWW.BeautyGallery.co.kr)등과 미국에서 김목자 동기는 Global Children Foundation 나라사랑 어머니회 총회 회장으로 미국 각 지역의 어머니들이 모금한 바자회 이익금을 모국의 불우이웃돕기 및 어린이 가장돕기에 매년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사이면서 의학박사인 오창준(오창준 의원 원장), 약사이면서 한의사겸양의사인 이정복(성도가정의학과 의원)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의 교수였던 오재기, 경기도 환경문제연구소 안양지역 환경단체연합회 회장 이성섭(정우약국) 또한 김연희 여동기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제6대 여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중앙대여자동문의 결속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열성 동기생의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동기생들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이날 참석한 명예교수님들은 우리가 졸업 당시에 계셨던 교수님들로 한덕룡, 김종갑, 손동헌, 이광표, 김일혁 박사님 외 현 중앙대 약대학장이신 최영욱 박사님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때 학장이셨던 양형호 교수님, 최규환 교수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불참하셨고 장판섭 교수님, 이은우 교수님, 허봉섭 교수님은 연락이 없고, 최석상교수님, 고윤식 교수님은 타개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떠날 줄 모르는 동기생들의 잔치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듯 밤이 깊어가는 줄 도 모르고 행사가 진행된 지 10시가 지나서야 열기 넘치는 그 자리를 겨우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동기생들의 동참이 있어서 우리 약학 대학이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동기생들은 부산, 대구, 대전, 익산, 영동, 서산, 마산, 상주를 비롯한 경향각지와 서울에서 96명(남학생 68명, 여학생 26명)이 참석하였고, 명예교수 및 학장까지 6명 행사요원 이벤트사 포함 110명이 성황을 이루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를 확인하고 얼싸안고 즐거워하며 오랜 만남을 만끽하였고, 특히 상주에서 서광약국을 경영하는 조현인 약사가 류시화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의 시낭송이 있을 때는 모두들 60년대의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부푼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때의 모습들이 가슴 흐뭇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서로의 장기자랑과 행운권 추첨이 있었을 때는 혹시 나에게 무슨 행운이 찾아들까 하는 기대감에 그래도 즐거웠던 그시간… 추첨을 통해 등수에 들었던 장영자, 문옥자, 허근히, 박성애, 한창택, 허청욱, 유영수, 김혜선, 김명자, 정재용 등등… 시간은 흘러도 떠날 줄 모르는 동기생들의 잔치는 내일까지 계속 이어질 듯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행사가 진행된 지 10시가 지나서야 열기 넘치는 그 자리를 겨우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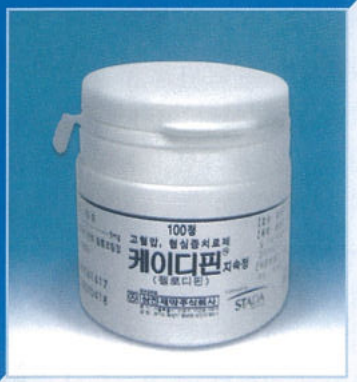
이날 우리 동기생들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 동문회장 임상묵에게 장학기금으로 400만원을 전달하였고, 약대학장의 모교 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약학관 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립기금으로 조의환(1억원), 이백천(500만원), 박성애(300만원), 주왕기,김회자 부부(300만원), 장영자(300만원), 최병준(200만원), 배영애(100만원), 총 1억1천700만원이 조성됐으며, 먼저 기금을 내주신 김연희(500만원), 김형이(500만원), 문옥자(300만원), 박찬수(300만원), 신현우(100만원), 윤주섭(300만원), 이백천(1000만원), 이조열(300만원), 임상묵(500만원), 정재용(300만원), 조의환(1000만원), 한석원(500만원), 허근희(300만원) 총 합계 1억7천600만원으로 우리 동기생들의 학교사랑을 몸소 실천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동기생들의 동참이 있어서 우리 약학대학이 초일류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이 행사가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해주신 전 동기회장님들 그리고 현 회장단의 부회장님들과 총무 그리고 상임이사, 이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우리 다시 50주년행사 때에도 많은 동기생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건강에 유념하셔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여 영원히 사랑합니다!!!

DRUG INFORMATION



■**원료약품의 분량** : 1정중 펠로디핀(이피) ·····5mg

■**성상** : 연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효능 · 효과** : 고혈압, 협심증

■**용법 · 용량** : 이 약을 복용시 물과 함께 그대로 삼켜야 하며 분할하거나 씹거나 부수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1. 성인

1) 고혈압 : 펠로디핀으로서 초회량으로 1일 1회 5mg을, 유지량으로 1일 5~10mg을 아침에 경구투여한다. 1일 최대 20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은 β-차단제 또는 이뇨제와 병용투여 할수 있으며 다른 혈압강하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이 약 단독요법으로서 투여할 수 있다.

2) 협심증 : 초회량으로 1일 1회 5mg을 투여하며 필요에 따라 10mg으로 증량할 수 있다. 1일 최대 20mg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약은 β-차단제에 의하여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병용투여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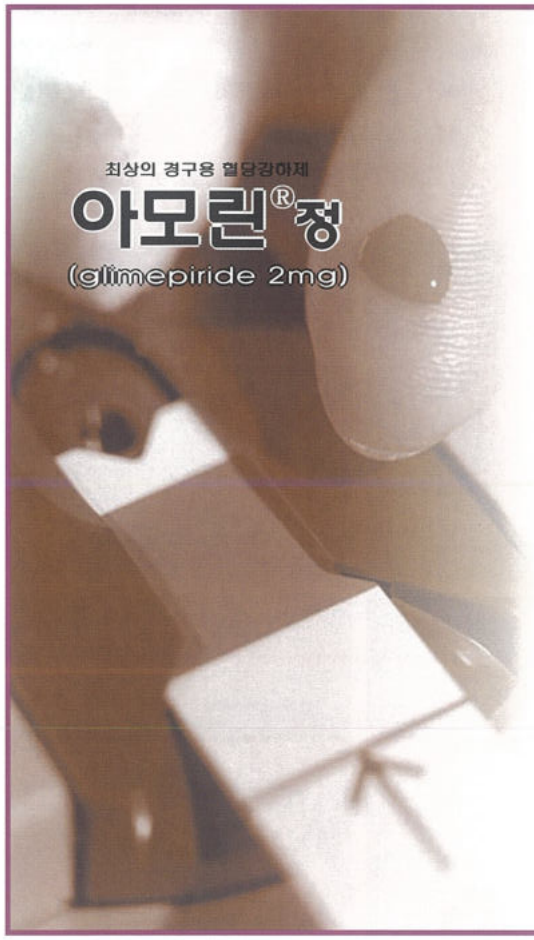
■**저장방법** :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포장단위** : 100정

■**보험등재코드** : A12703331

제조판매원
삼진제약주식회사
http://www.samjinpharm.co.kr

이 / 달 / 의 / 신 / 약



최상의 경구용 혈당강하제

아모린®정

(glimepiride 2mg)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할 당뇨병약이기에 안정성과 효과가 절충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인슐린 분비 유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Dual action으로 혈당 조절 능력이 우수합니다.
2. 당뇨합병증이나 타 질환으로 인해 투여되는 각종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안전한 약물입니다.
3. 1일 1회 투여로 복용이 편리합니다.
4. 저혈당 발생, 체중증가, 심혈관계에 대한 부작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5.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효능 · 효과 :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type 11)

용법 · 용량 : 각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절합니다.

보험코드 : A04803301

※ 보다 자세한 제품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는 바이넥스 마케팅부 (051-263-3151)로 문의 주십시오.

Binex (주) 바이넥스
http://www.bi-nex.com ☎ 080-263-3151

여 운 숙
(18회, 여동기회 총무)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지난 몇개월간 동기들과 열심히 이것 저것 준비하며 분주하게 지냈다

오늘은 드디어 D-day.

설레는 마음에 엊저녁엔 잠도 안와서 뒤척이다 일찌감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나이가 오십이 넘었으니 무슨 일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겨 이렇게 설레이리란 생각은 안했는데 이게 무슨 조화속인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책임맡은 이런저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집을 나섰다 지방에서 오는 동윤이의 예매한 티켓을 찾으러 터미날에 들려서 약속된 팔레스호텔에 들어서니 부지런쟁이 혜옥이와 성원씨가 나를 반긴다.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 일찍 도착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하룻밤을 잡아 놓은 룸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 깔깔웃고, 따뜻한 방바닥에서 몸풀기도 해가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한가로운 적이 있었던가?

너무도 편안한 분위기에 몇십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학창시절로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져 들었다.

드디어 행사장으로 들어서니 가슴이 마구 뛴다. 다른 친구들도 나같은 마음이었겠지? 학교때 우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들이 한 두분 빼고 모두 오셨다.

정말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학생 땐 너무나 어려워 말씀도 제대로 못올리던 높으신 분들이셨는데 우리에겐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보였지만 교수님들은 여전하시다.

젊음의 기가 충천한 캠퍼스에서 사셔서인가 늙지도 않으시나보다.

우리가 입학할 때 전교톱이 약대에서 나와 우리의 기를 살려주던 혜옥이가 사회를 보는데 놀라웠다.

어디서 그렇게 좋은 글귀는 줄줄이 외우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건지 어느 모임의 명사회자도 그렇게 세련되게는 못하리라.

몇몇 교수님의 축사를 들으며 그 옛

날 강의하시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친숙함을 느낄수 있었다. 하기사 학점과 연결이 없으니 부담이 없어 얼마나 좋던지….

교가제창을 할 때 스스로에게 너무나 놀라웠다 졸업 30년인데 교가가사가 줄줄이 생각났다 언제 내가 그렇게 애교심이 있었던건지 아니면 약대를 졸업한 우리의 좋은 머리를 지랑스러워해야할지….

만찬과 건배를 끝내고 화합의 시간이 되었다 다른 기수모임에선 식사 후 교수님들이 모두 자리를 뜨셨다는데 우리의 명사회자 전광우 친구는 재치있는 유도로 교수님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교수님들의 18번이 한곡조씩 울려 퍼질때마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김기명 친구의 하모니카 연주는 우리를 어린시절 느티나무 그늘아래로 데려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다. 약국 근무하는 틈틈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려 준비했다니 성의가 고맙다.

요새는 어디서도 하모니카 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한곡조씩 뽑아대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니 학교 때 야유회를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사람도 빠뜨림없이 준비한 선물을 나눠가지며 아쉬운 시간을 붙잡고 싶었다. 여기저기서 팀별로 사진을 찍으며, 석별의 정을 만남이란 노래로 마무리 지으려니 아쉽다.

조금씩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편하고 대하기가 좋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우리는 숙소로 자리를 옮겨 오늘 행사에 관한 느낌들을 얘기하며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쉬운 농담들도 나눠가며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을 위해 잡아놓은 숙소에서 정작 그 친구들은 떠나고 우리가 잠을 자다니… 한잠도 못자고 수다를 떨었지만 즐겁다 언제 또 이런 날이 오려나? 5년 후, 아님 10년 후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아쉬운 마음을 남긴 채 새벽 해장국을 먹은 후 우리는 다시 만나길 기약도 없이 헤어져 일상으로 돌아왔다.

꼭 타임머신을 타고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온 것 같다. 순수와 열정으로 지내던 그 시절의 친구들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냥 좋다.

각자의 건강들 챙기며 몇년 후 다시 좋은 모습으로 만날수 있기를 고대한다.

조금씩 세월의 흔적은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학창시절 보다는 지금이 훨씬 편하고 대하기가 좋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우리는 숙소로 자리를 옮겨 오늘 행사에 관한 느낌들을 얘기하며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쉬운 농담들도 나눠가며 밤이 깊은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다.

장 원 규
(28회, 총무)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2004년 11월 6일 세종호텔에서 28회 약대 졸업생의 졸업 20주년 성년행사가 있었다.

이번 성년행사는 입학20주년을 학교에서 치룬 후 4년만의 행사로 최영욱 학장님과 임상묵 동문회장님, 손동헌 교수님 세 분의 명예 교수님 그리고, 열 한 분의 약대 교수님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임상묵 동문회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손동헌 명예교수님의 기념사가 있었는데 80학번 입학시절에 학장으로 재직했었기 때문에 더욱 감개무량하다고 끝을 맺으셨다.

이어서 진행된 케익커팅에서는 학장님, 동문회장님, 28회 동기회 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선임된 약대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 사제지간의 만남을 빛냈다. 전국에서 모인 28회 동기생들은 40대 중반의 가장 바쁜 삶을 사는지라 4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최영욱 학장님의 약대발전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발전기금에 적극 동참하여 2,100만원을 모금하여 28회 동기회는 기부자 총20명에 6,800만원의 기부금을 내는 동기회가 되었다.

또한 동덕여대 약대와 모교약대에 교수로 재직하는 임세진, 임채욱 졸업생과 교도행정직 약사로서 약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이생수 졸업생이 28회 동기회 이름으로 감사패를 증정이 예정되었으나 당일 행사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고 행사 후 증정되었다.

마지막 본고사 학번이라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지닌 28회 동기회는 졸업 후 4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을 겪으면서 학창시절이나 지금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동기애 또한 뜨겁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한마음 프로그램은 전문 레크레이션 진행자를 초빙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 학창시절로 돌아가 웃음과 즐거움으로 마흔 중반의 희로애락을 잊을 수 있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 후 헤어지기를 섭섭해 하는 마음으로 호텔을 나와 까페에서 학창시절 얘기를 안주로 시원한 맥주를 들이킬 때 늦게라도 찾아온 박종문, 송준용 동기에게 보내는 모두들의 환영 박수가 분위기를 돋우웠고 그 후로도 비좁은 오뎅 집을 꽉 채우고 앉아서 혹은 서서 소주 한잔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했다.

몇몇 동기들은 부인을 합석시켜 더더욱 정겨운 자리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는 이른바 열성당원들이었다. 약대의 발전을 바라고 얘기하며 교수님의 건강을 바라며 모든 동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너 나가 없는 하나임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음에 만족해 하는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메워졌다.

행사 이후 서울경기 지역의 동기들은 간단한 모임을 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연락을 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정기 모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약대의 발전을 바라고 얘기하며 교수님의 건강을 바라며
모든 동기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너 나가 없는 하나임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음에
만족해 하는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메워졌다.
행사 이후 서울경기 지역의 동기들은 간단한 모임을 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연락을 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정기 모임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특별기고

동문의 자화상

윤 대 봉
(14회, 이사)

2000년 5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제13대 동문회 회장단 총무로 참여하며 모교사랑과 동문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뒤돌아보면 내인생에 아주 보람차고 뜻깊은 세월이었습니다.

여러 선배님, 후배님 교수님들! 전부가 나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하느님과 동문여러분께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꼬박 꼬박 존대말을 쓰시고 누구를 하대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인격적인 세련됨이 몸에서 풍기는 모습들을 느끼며 우리동문의 자화상을 그려봅니다 이런 문화와 풍유가 있는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많은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읍니다.

우리 회장단은 눈빛만 보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명콤비, 환상의 회장단이었읍니다.

유영후 회장님은 진정 준비된 회장님이었고 서국진 선배는 총무는 언제나 회장님보다 앞으로 나서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화는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 선 · 후배간의 존중과 신뢰에서 만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항상 흔들림 없이 우직스럽게 추진해 나가시던 유영후 선배님 한동안 중단되었던 동문체육대회,동문회보지의 부활 · 각 지역별, 영역별동문 모인 활성화 · 전동문 년회비 납부제, 장학금 이자에 면세혜택 등 동문회 운영의 틀을 정비하셨고 2002년도 새로 취임하신 최영욱 학장님과 모교 약학관 신축건립모금운동으로 모교발전의 원년의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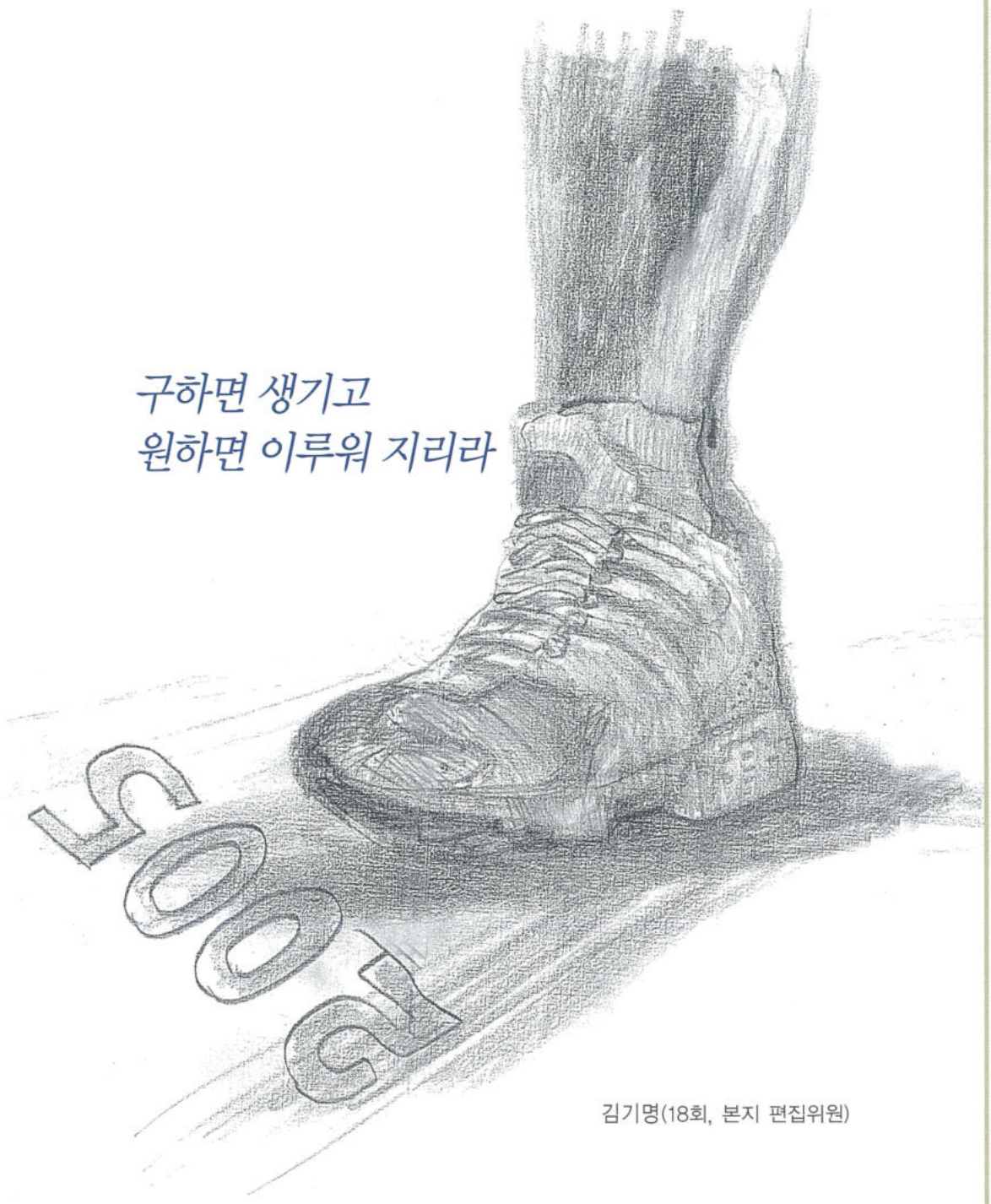
여러 동문회 모임에 참여해 보면 언제나 모임 앞자리들을 지쳐주시는 1, 2, 3회의 몇몇 대 선배님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떠올려 집니다.

꼬박 꼬박 존대말을 쓰시고 누구를 하대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인격적인 세련됨이 몸에서 풍기는 모습들을 느끼며 우리 동문의 자화상을 그려봅니다.

이런 문화와 풍유가 있는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많은 훌륭한 후배들이 배출되고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도 이젠 선배님처럼 문화와 풍유가 있고 인격적인 세련됨이 몸에서 풍기는 동문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중앙대학교 약대동문회는 영원하리…

첫 발자국…



구하면 생기고
원하면 이루워 지리라

김기명(18회, 본지 편집위원)

겨울철 감기약 복약지도

감기약은 환자가 임의로 처방없이 복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약물로서 부작용이나 약물상호작용 등이 항상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약사는 감기약 선택시 각 성분별 적응증, 금기사항, 부작용, 상호작용,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감기는 7~10일이면 치료되어야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며 치료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면 병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감기약은 알러지성 비염에도 사용하므로 감기와 알러지성 비염과 장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다.

최 병 철 (21회)
약학박사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약사교육연구소 소장

주로 감기약은 한 두가지 성분이 함유된 약과 어러가지 복합 성분이 함유한 약인 일명 종합감기약이 있다. 단일 성분의 약은 특정 증상은 최대한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합감기약은 다양한 증상에 효과적이지만 불필요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감기약은 주로 해열진통제, 비충혈제거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으로 구성된다.

해열진통제는 감기에 의한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등이 있다. 비충혈제거제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 작용하여 충혈된 혈관을 수축하는 약물로서 급성 부종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개선한다. 비충혈제거제에는 비분무제로 phenylephrine, oxymetazoline, xylometazoline등이 있고 경구제로 pseudoephedrine과 최근 사용금지된 phenylpropanolamine(PPA)이 있다. 이들 비충혈제거제들은 알러지성 비염에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경구제의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의 자극에 의한 혈압상승, 빈맥, 심계항진, 부정맥이 있을 수 있으며 중추신경자극에 의한 불면, 불안감, 진전,공포감, 환각 등의 증상이 있으므로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질환, 논내장,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주의하여야 한다. PPA는 pseudoephedrine 보다 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도 알러지성 비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증상을 개선시킨다. 즉 히스타민이 수용체에 작용하여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에 길항작용을 나타내는 약물로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에는 효과가 있어 70-95% 정도의 환자에서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코점막 충혈과 코막힘에는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진해거담제 선택시 진해제는 가래가 없는 기침에 효과적이며 거담제는 가래가 있는? 기침의 완화에 사용한다. 거담제인 구아이페네신은 객담배출을

복약지도

동반하는 기침에 사용하며? 瞿慣竪?/SPAN〉 분비물의 농도를 묽게하여 객담의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객담용해제인 씨스테인계통 약물들은 기관지성 가래를 가진 기침에 사용한다. 또한 인후통치료제로서 국소마취 및 소독제 등이 있다.

인후통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3~4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면 효과적이다. 알러지성 비염에는 감기와 달리 예방 차원의 약물의 선택이 필요하다. 크로몰린 비강분무제는 항원에 접촉후 나타나는 탈과립을 억제함으로서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아나필라시스 유발물질이 유리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 약물은 알러지 증상을 신속하게 경감시키는 효과는 없고 예방목적으로 사용한다.

치료시작 4-7일 후에 증상이 개선되고 심한 알러지성 비염의 환자의 경우에도 약 2주 후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투여하여야 한다. 국소용 스테로이드 비강분무제는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조절이 안되는 환자에게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구로 투여하면 약물로 인한 전신부작용을 일으켜 장기간 사용이 어려우나 국소용 스테로이드제제는 전신부작용없이 알러지 염증반응을 억제하므로 알러지성 비염의 전반적인 증상호전과 코막힘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감 기〉

1.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잇는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한다.
2. 눈, 코, 입을 서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3. 외출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4.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코와 기관지가 축축하도록 한다.
5. 자주 소금물로 입과 목안을 헹구도록 한다.
6. 가습기를 사용하여 방안에 습도를 높혀준다.
7. 비타민 C가 충분한 과즙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8. 인후통이 심하고 오심, 구토, 발열,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9. 기침이 10일 이상 지속되거나? 세균 감염 증상(짙은 콧물, 가래, 고열, 호흡곤란, 흉통, 천명, 이통 등)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해열진통제〉

1.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금주하도록 하여 위장장애를 피하도록 한다.
2.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현훈, 이명, 손발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3.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천식, 출혈환자에게 피하도록 한다.
4. 아스피린은 수두 등 바이러스 감염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5. 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4그램 이상 복용하지 마시고 금주하도록 한다.
6.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질환이나 알코올중독자는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비충혈제거제 함유제제(비분무제)〉

1. 3~5일 이내에서 사용하고 갑자기 중단하면 반동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사용부위의 자극감, 재채기, 건조감이 나타날 수 있다.
3. 비분무제 사용전 코안을 깨끗이 하고 약을 넣는다.
4. 비분무제 사용시 병 입구부분이 코에 닿지 않도록 한다.
5. 약을 주입시 왼쪽 손으로 오른쪽 코 안으로 오른쪽 손으로 왼쪽 코 안으로 약을 넣도록 한다.

〈비충혈제거제 함유제제(경구제)〉

1. 심혈관부작용(혈압상승, 맥박증가, 심계항진, 부정맥 등), 중추흥분작용(불면, 진전, 불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당뇨병, 갑상선기능항진증, 관상동맥질환, 허혈성심질환, 안압상승, 전립선비대증인 경우 상의하도록 한다.

〈항히스타민제〉

1. 술, 수면제 등 복용을 피하도록 한다.
2. 졸림과 어지러움이 있으므로 운전 및 주의가 요하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3. 항콜린증상인 구갈, 건조안, 시야몽롱, 배뇨곤란, 변비, 빈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어린이의 경우 불안, 흥분 및 안절부절 등 중추흥분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5. 가래가 있는 기침에 사용하면 기침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진해거담제〉

1. 만성폐색성 폐질환, 천식, 울혈성 심부전환자인 경우 복용을 피하도록 한다.
2. 중추성 진해제는 졸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별난동문이야기

세월이 흘러서도 값어치가 있는 취미를 찾아…

김 항 석 (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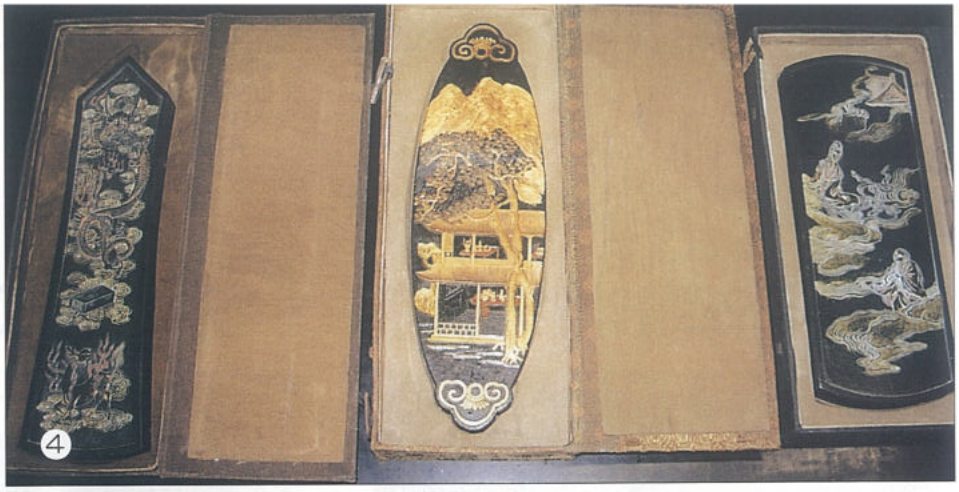
동문회에서 공문하나가 날라왔다….

원고청탁서란다. 내가 무슨 별난동문이라고 나에게 원고를 부탁한다는 건지…. 나는 그저 약사로서 생활하면서 활동적인 성격을 살리고 싶었고 세월이 흘러서도 값어치가 있는 취미를 찾다보니 그것이 바로 수집이었다.

1970년도에 왕십리 5일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벼루가 눈에 띄어 선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무턱대고 벼루를 200점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을 모르는 사람에겐 그저 돌이듯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에 대해 공부가 부족했다. 시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벼루에 대해 학술적으로 써 놓은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대만의 친구에게 부탁해서 좀더 방대한 자료를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친구는 대만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도록'을 어렵사리 구해 주었다. 책에서 그동안 내가 모았던 검은색 먹이 아닌 칼라먹 사진을 보게 된 것이다. 너무 놀랍고 흥미로왔다. 그래서 나는 본격적으로 칼라먹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칼라먹을 구경하기 위해 대만을 몇 번이나 방문하였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를 겪은 후 먹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1988년도에 중국이 개방되어 나는 다시 중국에 가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다시 먹 자료를 구하기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북경에 사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먹을 구해 달라고 했다. 내가 소장한 '문화재도록'을 본 친구는 칼라 먹을 어렵게 구해다 주었고, 그 친구가 구해준 먹을 보면 유교, 불교, 도교, 동물, 청동기, 화폐시리즈 등 먹의 문양과 종류의 양이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씩 모아 소장하다 보니 2,000점이나 모으게 되었다. 또 중국 자금성 골목길 책방서점을 다 둘러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설먹'이라는 책을 얻었는데 그 책에는 중국의 먹의 역사, 제법, 우리나라에서 상납된 먹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또 명나라, 청나라의 최고 먹공 이름이 수록되어 있으며 칼라먹은 무려 20,000만점을 수집해야 구색이 맞는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칼라먹은 36가지 다양한 칼라가 있고 명나라 때 만든 작품은 청나라 때 안만들 정도로 국가적 자존심이 담진 문화재였다. 특히 이 먹의 효용은 중국의 과거제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시험의 각 심사관이 각각 다른 색깔의 먹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을 막았다. 또, 사찰의 5가지 단청을 칠하는데 사용되었다.

나는 젊어서부터 자기 직업 외에 적성에 맞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지향적인 취미보다는 저축성 취미인 수집을 권하고 싶다. 저축성취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길수 있을뿐 아니라 수집을 정리 하면서 공부도 되고 감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20년이 지나 내 생활이 취미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취미라고 생각한다.

나는 칼라먹을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고 내가 수집해 놓은 1,500~1,800여 점이 넘는 칼라먹이 제자리에 가서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사진설명〉
1~2. 칼라먹과 진열장
3. 환관 두관정도의 명나라, 청나라 기둥먹
4. 청나라 황실에서 사용한 먹
5. 청나라 가경황제의 하사품
6. 명나라 황실용먹
7. 명나라 먹
8. 전국시절 화폐모양의 먹

발전기금으로 1억원 기부

지난 11월 8일 조의환(8회) 삼진제약 회장은 졸업 40주년 행사를 마치고 중앙대학교 박명수 총장을 방문하여 모교의 발전과 후배사랑의 마음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100,000,000원을 전달했다.

사법고시 합격 신순옥 동문

신순옥(34회) 동문은 8살, 7살 두아이의 엄마로 약사지만 평범한 전업주부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게된 계기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남편이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후 서울대 법대로 편입해 공부할 당시 집에 와서 학교에서 시험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생각을 얘기하면 판례와 비슷하게 많이 맞추곤 했던 데서 시작됐다. 그때 남편이 법을 공부해 보라고 권유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현재 그녀의 남편은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근무중이다.

우리 동문 약사로서 신순옥 동문은 약사이자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유일한 여성 동문으로 동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예중회, 입학 40주년기념 전시회

12회(64학번) 동기모임인 예중회(회장 민명임)는 12월 11일 안국동 소재 백상기념관에서 30년 동안 모은 작품을 가지고 입학 40주년기념 전시회 개최했다. 예중회 회원은 민명임 회장을 비롯 김옥희, 김혜경, 문혜성, 박광자, 박영찬, 우경숙, 이순우, 이효훈 동문 등이다. 특히 김옥희 동문은 전시회를 첨석하기 위해 미주에서부터 왔고, 문혜성 동문은 "봄의향기" 작품을 동문회에 기증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예, 사진, 민화, 유채화, 수채화 등 총 27점의 작품이 소개됐다.

이광섭 동문 박사학위취득

이광섭(24회)동문은 현재 서울적십자병원 약제부장과 적십자간호대학 외래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병원약사회(사단법인)에서 보험이사로 병원약제수가와 관련 된 일을 도맡아 활동하고 있다.이번에 모교 대학원에서 "Antioncative Compounds from The Leaves of Quercus salicina"(참가시나무 잎의 항산화 성분)이라는 논문으로 지난 8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감사기나무(Quercus salicina)는 설사, 이질, 피부염, 출혈증, 항염, 항부종, 이뇨의 효능과 특히 결석의 용해와 배출에 효능이 있어 우리나라아 일본등에서 결석치료에 사용됨.

손의동 교수 녹암학술상 수상

지난 2004년 10월 21일과 22일 양일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대한 약학회 학술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 모교의 약리학 교수인 손의동 교수가 최근 국제적인 논문 출판과 연구활동이 우수하고 뛰어난 학자에게 주는 영예의 녹암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고 한구동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수상소감으로 "연구 더 잘하는 채찍질로 생각하며 제자와 후학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여 겸손함도 보여 주었다. 분자조절신약개발연구소장을 맡아 있고 신약개발을 위한 벤처를 창업해 활동하고 있으며, Autonomic & Autacoid Pharmacololgy 저널의 국제편집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기 증

지난 10월에 청룡회에서 동문회에 필요한 디지탈카메라를 기증했다.

행 사

• 12월 10일 병원약사위원회 반포 이찌방

• 12월 11일 12회 동기모임 및 예중회 전시회 백상기념관

• 12월 12일 15회 동기모임 해밀턴호텔

결 혼

• 10월 17일 한석원(8회) 이사 자녀결혼
• 11월 28일 박숙자(7회) 이사 자녀결혼
• 12월 19일 이호섭(12회) 부회장 자녀결혼

부 음

• 7월 30일 박종화(23회) 부회장 부친상
• 8월 4일 한석원(8회) 이사 빙모상
• 8월 7일 현영철(3회) 동문 별세
• 8월 9일 조중형(18회) 이사 빙부상
• 9월 20일 유종운(29회) 동문 빙모상
• 9월 22일 조근태(23회) 이사 부친상
• 9월 30일 성열호(3회) 이사 별세
• 10월 16일 박찬희(11회) 부회장 모친상
• 10월 16일 김형근(22회) 이사 모친상
• 10월 25일 문용수(8회) 동문 부인상
• 10월 29일 박수원(8회) 동문 별세
• 11월 1일 정훈교(5회) 이사 모친상
• 11월 12일 한봉길(27회) 동문 빙부상
• 11월 22일 이문성(24회) 동문 부친상
• 12월 6일 황태선(9회) 이사 모친상
• 12월 11일 김대희(17회) 이사 모친상

부음시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근조기를 설치해 드립니다.

제12대 총장 박범훈(朴範薰 · 56)

피리 부는 총장님 "대학 운영도 예술처럼"

모교에서는 24일 제12대 총장으로 박범훈 (朴範薰 · 56) 창작음악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최근 대학마다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유리한 공대나 상경계열 출신 교수들이 총장에 당선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작곡과 국악이 전공인 그의 총장 선임은 이례적이다.

박 교수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음악 작곡과 2002년 한 · 일월드컵 개막식 음악 총감독 등 국내 주요 행사의 음악작업을 도맡다시피 해온 인물. 그는 "척박한 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어려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작곡가의 창조정신과 지휘자의 화합정신을 버무려 중앙대를 세계의 중앙무대로 진출시킬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48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난 박 교수는 국악예고에서 인간문화재 지영희 선생으로부터 피리를 배웠으며, 중앙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무사시노 음대에서 석사, 동국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내 최초의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과 한 · 중 · 일의 민족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창단했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초대 단장을 역임했다. 마당놀이 '허생전'과 '이춘풍전' 등도 모두 그의 작품이다. 또 작곡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쳐 무용곡과 관현악곡 · 독주곡 · 오페라 등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만 해도 수백 편에 이른다. '피리산조 연구' '작 · 편곡을 위한 국악기 연구' '한국불교음악연구'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중앙인의 긍지와 모교사랑으로 하나된 2004 중앙인의 밤

'2004 중앙인의 밤'이 지난 12월 16일 오후 6시 모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1부 기념행사는 서청원 동창회장의 환영사와 박명수 총장의 축사 그리고 올해의 자랑스런 중앙인으로 뽑힌 전 노동부 장관 유용태 동문(법학 13), (주)구주제약 회장 김명섭 동문(약학 12), 안국약품(주) 회장 어준선 동문(경제 12), 전 동창회장 배용수 동문(정외 15), 한국 수출입협회 회장 정승환 동문(정외 15), (주)디지털텍 회장 고광선 동문(정외 16), 모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양희 동문(가교 19) 등 7명에게 기념패와 금메달이 수여됐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상경 동문(법학 19)에게 축하패와 행운의 열쇠가 증정됐다. 2부 순서로는 만찬이 진행됐으며 3부 무대제에서는 인기가수 특별출연과 연극학과와 영화학과 재학생들의 뮤지컬 및 단막극 공연, 서인석, 홍요셉, 권은아, 강성범 등의 인기 동문 연예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있었다.

2003년초 구조개편 이후 교수진 대폭 보강

2005년 1월 현재 교수진

- 전임교원 : 20명
- 명예교수 : 7명
- 겸임교수 : 3명
- 객원교수 : 1명

* 2005년도 3월초에도 겸임교수 1명, 객원교수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

2004학년도 2학기 신임교원 임용

조 사 연

【 학 력 】
- 1982~1986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B.S.)
- 1986~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생화학전공 (M.S.)
- 1989~1996 Brandeis University (Ph.D.)

【 주요경력 】
- 1996~1999 Harvard Medical School 병리학과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 1999~200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단백질체시스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전공분야 】
- 프로테오믹스(독성학) - 단백질체학 - 세포신호전달

2004학년도 2학기 겸임 · 객원교수 위촉

〈겸임교수〉

강 춘 원

【 학 력 】
- 1985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1993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주요경력 】
- 특허청 약품화학심사담당관(특허청)
- (현)특허법원 기술심리관(대법원)

【 위촉기간 】
- 2004. 9. 1 ~ 2006. 8. 31

김 동 섭

【 학 력 】
- 1980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1988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주요경력 】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일반약리과 연구관(국립보건원)
- (현)국립독성원 유효성연구부 일반약리과장(식품의약품안전청)

【 위촉기간 】
- 2004. 9. 1 ~ 2006. 8. 31

박 종 화

【 학 력 】
- 1979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1996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주요경력 】
- (현)온누리약국체인 대표이사

【 위촉기간 】
- 2004. 9. 1 ~ 2006. 8. 31(재위촉)

〈객원교수〉

박 희 용

【 학 력 】
- 1979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약학사)
- 1999 :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약학박사)

【 주요경력 】
- 메디메디아코리아 편집국장
- (현)중외제약 송파교육원 자문교수

【 위촉기간 】
- 2004. 9. 1 ~ 2005. 8. 31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21억9백3십만원(2004년 12월 28일 현재)

교 수 총 15,800 만원

〈교내〉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종(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이민원(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5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타교〉 오유진(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한성순(100), 임세진(300)

학 생 총 5,350 만원

동문회장단 총 19,000 만원

임상묵(500), 유영후(1,000), 조의환(1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헌(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흥(300)

단 체 기 부 총 1,57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예중회 회원일동(100)
- 7회 동기회(500)
- 7회 약우회(박숙자 외 11명)(120)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원

- 한충강('02 한인빈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개인·부부동문 총 158,710 만원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1회〉 손동헌(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흥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 서화택(500) ,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3회〉 김석자(300), 김용옥(50,000), 조영만 · 이정자 부부(5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허인회(500)

〈5회〉 박명자 · 고두흔 부부(700), 이송학(300), 이해석 · 강태일 부부(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자(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자(300),이기황(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헌(500), 이준종(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이정자 · 조영만 부부(50), 정재일(500), 차승현(3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500), 이조열(300), 임상묵(500), 장영자(300), 정재용(300), 주왕기 · 김희자 부부(300), 조의환(11,000) 최병준(200), 한석원(500) 허근희(300)

〈9회〉 김영부(500), 노신희 · 이기안 부부(500), 상병준(3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윤(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11회〉 김승업(300), 김정길(100), 김창종(5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이철규(50) ,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홍금자 · 남기탁 부부(500)

〈12회〉 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 · 홍금자 부부(500), 노덕재(300) , 박영찬(1,000), 민명임(1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 · 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중목(300), 이종각 · 박종애 부부(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언(1,000), 정진모(300)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조찬휘(300)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 · 이종각 부부(500), 우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 · 조성복 부부(500)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 · 방금숙 부부(5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300), 김경오(5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20회〉 강혜옥(300), 김영섭(300), 김종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열호(300), 방금순 · 선우영환 부부(5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임경원 · 이현숙 부부(1,000), 정찬헌(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21회〉 강성무(300),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백운경(5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 · 김민숙 부부(300)

〈22회〉 강희윤(300), 김철수(300), 김홍진(500), 박동우(300), 손의동(700), 오황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장용운(300), 전일오(300), 최광훈(300), 정진호 · 강명희 부부(500)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1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정원국(300)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00), 김승재 · 김희식 부부(5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중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최재윤 · 김윤경 부부(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춘규(100), 김희섭(300), 성낙순 · 강응모 부부(500), 손현우(300), 위성건(500), 이내흥(300), 이민원(500), 이재희 · 김은진 부부(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 · 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 · 이숙희 부부(500), 진희억(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순용, 오흥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각각 300씩 총 2,100), 곽순자(150), 김정호(300), 남상진(300), 박수길 · 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 · 조순연 부부(5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 유기조(300), 오영돈(300), 이선애(100), 최기선(300), 현기원(300)

〈28회〉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김윤경 · 최재윤 부부(500), 김유곤(500), 김희식 · 김승재 부부(500), 박용석(100), 박우종(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숙희 · 이창훈 부부(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효금(300)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 · 이재희 부부(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이 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30회〉 김광식 · 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자(300), 장부자(300), 조덕희(300), 조순연 · 방만성 부부(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31회〉 김진흥(300), 김하형(500), 박건규(50), 변동성(300), 이현숙 · 임경원 부부(1,000)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300)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이재휘(500)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35회〉 곽정근(300), 권준한(300), 황광우(500)

〈36회〉 방극상(50), 안영윤(300), 우경아(300) , 임성호(300)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38회〉 박웅석(300), 박종호(300)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41회〉 구영준(300)

〈43회〉 강규태(100), 김중호(100), 신명숙(3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2004년 5월 7일 ~ 2004년 12월 31일)

회장단 회비(연24만원)

▷ 8회 : 임상묵, 조의환, 김돈기, 허근희
▷ 9회 : 권혁구, 이규진
▷ 10회 : 박호일, 유정사
▷ 11회 : 정덕호, 황공용, 박찬희
▷ 12회 : 노덕재, 이호섭
▷ 13회 : 서국진, 안병식
▷ 14회 : 엄태항, 김종렬
▷ 16회 : 최광식, 조기현
▷ 17회 : 양희익
▷ 18회 : 정명진, 양만기
▷ 19회 : 김경오, 김미담
▷ 20회 : 김현태, 정찬헌
▷ 21회 : 김두수
▷ 22회 : 최광훈
▷ 23회 : 박종화, 김영식
▷ 24회 : 김승재
▷ 27회 : 박영달, 현기원
▷ 28회 : 안희규
▷ 29회 : 이준
▷ 30회 : 김광식
▷ 31회 : 이성표

이사회비(연12만원)

▷1회 : 김기홍, 홍흥만, 김욱동
▷3회 : 최종묵, 김석자, 박종순
▷4회 : 이창우, 박노일
▷5회 : 김명섭, 김영배
▷6회 : 박정배, 임성기, 안병한, 임완호, 김명기
▷7회 : 이기안, 박명신, 유영후, 서명규, 유윤자, 김정부
▷8회 : 한석원, 박번일, 김홍자, 윤주성
▷9회 : 이근배
▷10회 : 이대윤
▷11회 : 김창종, 김정길, 김미자
▷12회 : 남기탁, 조택상, 이양원
▷13회 : 신선철
▷14회 : 구종모, 윤대봉, 박기진, 안태화
▷15회 : 임영식, 조찬휘
▷16회 : 권영복, 송용만
▷17회 : 신상직
▷18회 : 강응모
▷19회 : 이경옥, 윤건섭
▷22회 : 강희윤
▷23회 : 제갈희
▷24회 : 심영철, 황규진, 함삼균, 윤규형
▷25회 : 김희섭
▷26회 : 최민규
▷30회 : 고석일, 김광식
▷이사회 무명 : 16명

일반회비(연2만원)

• 2회 : 정인장, 한성순, 김양원, 김길수
• 3회 : 김기동, 현영철, 한만우, 손석우, 심한섭
• 4회 : 오제호, 홍범표, 최중화 , 김희관
• 5회 : 손규산, 임맹순, 임갑환, 강용구, 임형철, 강희복
• 6회 : 이풍기, 신현곤, 신의명, 김태춘, 정진석
• 7회 : 안기헌, 윤태정, 강승안, 조경신, 한철희, 김정부, 조근행, 한경석, 손종화, 이윤재
• 8회 : 정현숙, 문홍수, 서동섭, 장승자, 홍봉표, 박수일, 박영우, 안덕기, 엄규종, 정재영, 이영복, 김일래, 이숙자, 강경식, 허정자, 손현우, 이태하, 김진우
• 9회 : 박장규, 박준호, 이경주, 조경자, 윤광로
• 10회 : 김삼균, 이성규, 박호일, 박광일, 오창학, 민병창
• 11회 : 이교문, 신명승, 김철홍, 양계창, 유병태, 서세양, 강일성, 윤대장
• 12회 : 이성순, 우경숙, 이기헌, 홍정덕, 송두금
• 13회 : 왕문화, 임동욱, 김창식, 김신미, 권일순, 유용상
• 14회 : 현혜경, 최종택, 유관희, 안해봉, 안희영, 김갑동

- 15회 : 정육주, 오세일, 조성래, 박원봉, 조경래, 박태효, 고동석, 이양섭, 박인호
- 16회 : 강경식, 권희문, 박창호, 박주영, 윤영위
- 17회 : 김재천, 유종관 , 최해광, 박재식
- 18회 : 조춘우, 이영우, 김청길, 이복숙
- 19회 : 고재무, 유제영, 김기성, 김동희, 송택용
- 20회 : 방재환, 이종훈, 박문수, 윤춘수, 배성진, 안연준, 지태현
- 21회 : 어경남, 신길득, 이두순, 조홍윤
- 22회 : 한만영, 이순명, 심재호, 한상훈, 김태일, 유대식
- 24회 : 강창주, 임철빈, 김정일, 한성엽, 김기준
- 25회 : 권세형, 송태수, 전경숙, 이동규
- 26회 : 정기춘, 조용백, 이순아
- 27회 : 유재수, 한규정, 최충식, 김덕진, 안희영, 오영돈
- 28회 : 조승찬, 권창호, 김형남, 오용식, 임춘식, 조상오, 박우종
- 29회 : 이종민, 정극성, 김광석, 이경근
- 30회 : 김연하, 이진우, 손은실, 김광식, 윤희숙, 강성철, 고은숙
- 31회 : 최윤실, 구상미
- 32회 : 박래경, 김광복, 이경우
- 33회 : 소정우, 길봉진
- 34회 : 박상권, 이영구, 홍용기
- 35회 : 김진, 오창현
- 36회 : 정현희, 방극상, 유수미, 강정희
- 38회 : 이봉상, 이주희, 조인호
- 39회 : 전병선
- 40회 : 장정수
- 41회 : 박종일
- 42회 : 허민찬, 김창경, 편석화
- 43회 : 이현선
- 44회 : 강미진
- 46회 : 김윤경
- 무명 : 96명

지로용지에 이름을 기재안하시고 납부하신 동문님께서는 연락주시면 기금납부자 명단에 기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납부하셨음에도 다시 지로용지를 보내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중앙대약대동문회

입금후 전화연락바랍니다.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해자명	평점
본동문회 (7,000,000) + (1,400,000)	700,000	약학1	고 종 명	3.92
	700,000	약학1	문 희 경	3.85
	700,000	약학1	남 윤 주	3.83
	700,000	약학2	황 초 희	3.92
	700,000	제약2	김 현 래	3.92
	700,000	제약2	김 인 철	3.92
	700,000	약학3	박 인 영	3.88
	700,000	제약3	이 명 재	3.89
	700,000	제약3	이 상 원	3.80
	700,000	약학4	채 혜 원	4.44
	700,000	제약4	추 미 연	4.05
	700,000	제약4	이 재 경	4.00
부산동문회 (1,000,000)	500,000	약학1	김 운 용	3.50
	500,000	약학2	황 창 선	3.77
여자동문회 (1,000,000)	500,000	제약3	신 정 연	3.75
	500,000	약학4	정 수 진	3.55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4	박 진 석	2.19
약수회 (2,000,000)	1,000,000	약학2	박 성 현	3.11
한미약품(주) (3,376,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합 계 : 16,276,000				

편집후기

2005년 乙酉年을 맞이하는 동문회보의 발걸음이 힘겹다.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약국가도 불황의 그늘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 것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호가 해를 넘겨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할 따름이다.
새해는 닭의 해이다. 우리 온 동문들이 닭처럼 부지런히 활동하면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던 모이를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된다.
새해, 새아침에 동문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드린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明

올해는 "다들 힘내..." 우리에게 격려해
주든이…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보는
여유를 갖는 것이 어떨까?
거꾸로 읽어보면 내 힘들다가 됩니다.
한 제약회사의 광고문을 2005년
화두로 엽니다.
매일 아침 만원버스로 힘들게 출근하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게다가 분노하고 슬픈 눈물이 흐른다면
아직 감정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올해는 모두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吾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방법은 바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 새들백교회 릭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본문중에서 -

새해에는 많은 동문들이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소간의 사간을 동문회에
투자하기를 바라며 동문회보 편집에 시간을
투자한 나는 우리 동문회를 정녕
사랑하는가 보다!!!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김기명(18회), 김경오(19회), 박희용(23회),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02)565-1700
팩스:(02)564-1701
E-mail:capa21@hananet.net

New Leader Hospital !

중앙대학교병원(흑석동) 개원

새로운 의료문화 중앙대학교병원이 선도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이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의학교육, 환자중심,
의학연구에 목적을 두고 진료 및
의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여 나가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료중이며 1월 18일 개원식을 거행 합니다.

■ 개요

병상수 : 554병상
연면적 : 16,799여평
규모 : 지상 15층 지하 3층

■ 주요 안내

MRI를 비롯한 500여억원의 장비 투입
"검사실 자동화시스템"으로 당일진료, 검사완료로 최선의 서비스 제공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차트와 필름이 없는 병원 남성센터, 담석센터, 관절센터,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센터 등의 전문 센터 중심의 진료, 종합건강진단센터, 진료의뢰협력센터, 가정방문간호운영, 건강생활센터

CAU 중앙대학교병원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주소 :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4-1(중앙대학교 앞)
대표전화 : 6299-1114
응급센터 : 6299-1339
종합건강진단센터 : 6299-2771-4
www.caumc.or.kr

반드시 의사 ·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anmi 한미약품(주)

케어가글로 감기 예방하세요

입속 세균을 잡아 감기를 예방한다!

매일매일 케어가글로 감기예방을

감기예방 – 감기의 원인이라는 호흡기의 세균을 살균 소독력으로 없애줍니다.
인두염에 – 목감기(인두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침입, 살균소독력으로 원인균을 없애줍니다.
후두염에 – 기침은 물론 목이 붓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후두염에 좋습니다.
편도염에 – 구개편도의 염증이 생기는 편도염, 살균 소독력으로 원인균을 없애줍니다.
구내염에 – 입속 점막의 상처를 통한 세균침투를 예방해 입안이 헐거나 피가 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케어가글로 충치예방을

충치예방, 치주염에, 입냄새에, 발치수술 후, 구강수술 후

입속 세균 없애주는 약~
케어가글액

약이니까 치과에서 처방됩니다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문의 : 02) 410 - 9066

ILDONG 일동제약

제품문의 : 080-022-1010(수신자부담) www.aronamin.com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비타민 C·E 셀레늄, 아연)보강!

아로나민 씨플러스

- 셀레늄 50μg (항산화제)
- 아연 18.66mg (항산화제)
- 비타민C 1200mg (항산화제)
- 비타민E 40IU (항산화제)
- 철분 27mg
- 엽산 500μg
- 비타민B1 54.57mg (활성비타민)
- 비타민B2 10mg (활성비타민)
- 비타민B6 10mg (활성비타민)
- 비타민B3 100mg
- 비타민B5 40mg
- 비타민B12 12μg
- 비오틴 45μg

(1일 2정 복용시 기준)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건강까지 – 아로나민 씨플러스

과로, 스트레스, 흡연, 공해가 심해지면 체내에 활성산소(유해산소)가 쌓이고, 오래 지속되면 각종 질병과 성인병, 노화를 부르기 쉽습니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1일 섭취량으로 충분한 **비타민C 1200mg, 비타민E, 아연, 셀레늄** 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와 피로를 풀어주는 **활성비타민** B1, B2, B6, 몸에 필요한 **엽산, 철분**을 보강하여, 현대인의 건강은 물론 여성의 피부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건강이 재산입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활성산소란 세포 내 지질과 단백질, DNA를 공격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앞당기는 유해산소로서 과로, 과음, 과식, 흡연 스트레스, 공해, 자외선 등으로 생성되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항산화제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로 비타민C, E, 아연, 셀레늄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로·눈의 피로 / 기미·주근깨 / 체력저하 / 임신·수유기 / 요통·신경통

엽산, 셀레늄, 아연, 철분, 비타민C 600mg 보강

아로나민·씨플러스

매일매일 2정씩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 (02) 565-1700 팩스 : (02) 564-1701
E-mail:capa21@hananet.net